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중단적 매개효과 검증: 낙인이론과 자기회귀교차지연 모델을 적용하여*

이 태 호

한 윤 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에서는 낙인이론과 여러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욕설 및 폭력 등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비공식낙인이 매개하는지 중단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비공식낙인의 중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중2 패널 2차년도~4차년도 데이터($N=3,168$)를 활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ARCL)로 분석을 진행하였고,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은 비공식낙인에 중단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둘째, 청소년의 비공식낙인은 학업성취에 중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셋째,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은 학업성취에 중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이 경로를 비공식낙인이 부분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의 방향성과 비공식낙인에 대한 예방 및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공식낙인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대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낙인이론을 검증한 경험적 뒷받침이 될과 동시에 피학대경험과 비공식낙인의 지속적인 영향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된다.

주요어 : 피학대경험, 비공식낙인, 학업성취도, 낙인이론,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 학위 논문을 수정 및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한윤선,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조교수, (110-745)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 yoonsunhan@skku.edu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에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으로 계속 성장 중에 있는 과도기로써 여러 발달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Rice & Dolgin, 2009).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심리적 혼돈이나 불안을 느끼기 쉬우며 주변의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과대 및 과소평가가 함께 일어나면서 마음의 동요가 심하게 일고, 부모나 교사 혹은 또래친구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어한다(이정미, 양명숙, 2006). 또한 형식적 조작의 사고가 가능해지면서 고차적인 사고가 발달하는 동시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타인들도 나의 외모와 행동에 신경을 쓸 것이라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기도 한다(한상철, 2004). 이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사고 혹은 정서적 측면 등에서 양극단적인 방향이 서로 공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정성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증대될 수 있다.

Erickson은 인간 발달의 여덟 단계를 제시했는데, 그 중 다섯 번째에 해당하는 청소년기 단계에는 개인의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청소년기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자아개념의 틀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Rice & Dolgin, 2009). 자아개념은 청소년 개인이 홀로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타인들 특히 자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모나 교사 혹은 또래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만약 사회구성

의 1차적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 가정환경에서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가 계속된다면 청소년은 사회적 기대에 반하는 부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이순형, 이영미, 1993).

이와 같은 맥락으로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의 영향은 낙인이론에서 말하는 비공식낙인과도 결부시킬 수 있다. 비공식낙인은 사법기관과 같은 공식적 기관에 의한 낙인이 아니라, 부모, 교사, 또래친구와 같은 비공식 집단에 의한 낙인을 말한다(이성식, 2007). 청소년은 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자기개념에 반영하여 자아 낙인을 형성할 수 있다(김소현, 2010). 즉 부모가 청소년 자녀를 대하는 부정적인 방식에 의해 자기 자신을 문제아로 여기는 비공식적 낙인이 형성될 수 있다.

권위적인 양육태도와 같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긍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Deković & Meeus, 1997; 최경숙, 2006)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안형숙, 2014). 자녀의 부정적 자아 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 중 대표적인 예로 학대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는 아동복지법 상 만 18세 미만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아동의 범주에 청소년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최근 아동학대가 점점 증가추세를 보임에 따라 국가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이혜영, 2015).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보고된 아동학대사례 6,796건에 비해 2014년도에는 3,231건이 늘어난 10,027건이 아동학대사례로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4년도 기준으로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만 13~15세 아동의 학대피

해가 전체의 2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 아동학대 사례의 8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유형별로 보았을 때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정서학대가 6,176건(40%)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학대가 5,699건(37%)으로 그 뒤를 이었다(보건복지부, 2014; 보건복지부, 2015). 이렇듯 최근까지도 국내에서 심각하게 대두되는 부모의 학대 문제는 특히 환경적 요인에 민감한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줄 수 있다. 다시 말해 부모의 반복적인 신체적 처벌이나 언어적 폭력과 같은 정서적 위협에 노출되면 자녀는 실제로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처벌을 받는 것을 합리화하게 되고 이로 인해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이종미, 2006; 오연희, 2012).

청소년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비공식낙인이 일단 형성되면 가출, 무단결석, 폭력비행 등 다양한 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데 이 중 학업성취의 실패를 생각해 볼 수 있다(Triplett, 1993; 이성식, 2007). 김선숙과 고미선(2007)의 연구에 따르면 학업성취도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부모의 학력, 교사와의 관계, 사교육비 등의 영향은 줄어들고 청소년 자신의 자아존중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개념이므로 자기 자신을 비하 청소년이나 문제아로 인식하는 청소년의 부정적 낙인이 학업성취에 미칠 부정적 영향력의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학업성취도는 학생신분인 대부분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상급학교 진학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고, 진로 문제에 있어서도 우선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요인 중 하나이다(이

은아, 2010). 이와 관련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3)의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아동이 받는 스트레스의 대부분이 학업 및 부모와의 관계 갈등에서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3년 기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자살을 하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업 및 진로문제가 전체의 38.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이와 같이 학업성취도가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았을 때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찾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청소년기는 여러 발달적 변화를 겪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이고 환경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여러 환경적 요인 중 부모의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올바른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어야 할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심어줄 수 있고, 이러한 비공식낙인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경로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자녀의 부정적 자아정체감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이혜영, 2015; 이재연 외, 2000)와, 낙인의 효과가 즉각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일정 기간 후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박현수, 박성훈, 정혜원, 2009; Agnew & Brezina, 2012) 학대의 영향을 받는 비공식낙인의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종단연구는 변인 간의 인과적 관계를 더욱 명확히 규정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박현정, 이진실, 2013), 낙인에 미치는 학대의 영향과 이로 인한 낙인의 효과를 더욱 효율적으

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공식낙인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본 종단적 연구는 더러 있지만(김효수, 김성천, 유서구, 2010; 장은비, 최현주, 하규영, 박은혜, 이상민, 2014), 비공식낙인의 효과를 비행행동에서 학업성취까지 확장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업성취도와 피학대경험 및 비공식낙인의 종단적인 관련성이 검증된다면, 학업성취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아낙인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낙인이론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연구적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낙인이론과 비공식낙인

낙인이론은 ‘일탈행동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물음보다 ‘일탈행동은 어떻게 규정되어지는가?’에 주목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Agnew & Brezina, 2012). 낙인이론에 의하면 일탈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에 내재된 객관적인 특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평가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다. 낙인이론가들은 이러한 사회·문화적 평가로 인해 일탈자로 낙인찍히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이 형성되어, 그 영향력이 범죄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Agnew & Brezina, 2012; 김보영, 이지혜, 이수정, 김혜자, 이상민, 2015). 이처럼 낙인이론에서는 개인행동에 대한 사회의 반응과 이러한 반응을 개인이 인지하고 해석하여 자아개념에 포함시키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점은 낙인이론의 기원과도 관련된다.

낙인이론의 기원은 사회학자인 Charles Horton Cooley와 George Herbert Mead를 거쳐 Herbert Blumer가 주장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Symbolic Interaction Theory)에서 찾아볼 수 있다(Matsueda, 2012).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는 사람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신호나 단어, 이미지와 같은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개인은 다른 사람의 이러한 상징적 표현을 보고 나뉘는 해석을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Siegel, 2008). 즉, 개인의 자아개념, 정체성, 가치 및 태도 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시 말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만 존재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Sandstrom, Martin & Fine, 2010). 따라서 개인의 자아개념과 그로 인한 행위는 사회적 평가와 시선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정신적으로 이상하거나, 문제를 일으킨다는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자아 이미지의 손상과 함께 비행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Adams, Robertson, Gray-Ray & Ray, 2003).

개인의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비행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낙인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경찰, 검찰, 법원, 정부기관 등과 같은 공식 기관에 의한 공식적 낙인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 교사, 또래친구 등과 같은 주변사람들에 의한 비공식적 낙인이다(이성식, 2007; Akers & Sellers, 2011). 초기의 낙인이론은 사법기관을 통한 범죄전과와 같은 공식적인 처벌만을 낙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낙인이론가들은 이런 공식적 낙인 경험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후에 지속적으로 비행에 가담하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연구를 진행해왔다(박현수 외, 2009; 김보영 외, 2015). 그러나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낙인이론가들의 주장이 경험적으로 지지되지 못하여 왔다. 또한 낙인이론을 전제로 한 사회정책의 적용에서 한계가 드러남과 동시에, 공식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억제효과로 인해 이후 범죄가 예방된다는 억제이론과의 논쟁까지 더해져 1970년 후반 이후 낙인이론은 퇴조하기 시작하였다(이성식, 2007).

하지만 초기 낙인이론을 보완하여 공식적 처벌 외에 비공식적인 사회적 반응에 주목하는 수정된 낙인이론이 제기됨에 따라 비공식낙인의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Akers & Sellers, 2011). 수정된 낙인이론에서는 굳이 공식적인 낙인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를 비행청소년 또는 문제아로 인식하거나, 주변 사람들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인지함으로써 자아낙인이 형성될 수 있다고 말한다(김소현, 2010). 그리고 이러한 비공식적 낙인에 의해 비행행동이 유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Matsueda, 1992; Bartusch & Matsueda, 1996; 최수형, 2008). 낙인이론 자체가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의 낙인 자체도 중요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자신을 낙인찍고 있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과 생각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받아들여 비공식낙인이 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다(곽상은, 김춘경, 2013; 김소현, 2010; 김효수 외, 2010;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요컨대, 낙인이론가들은 청소년의 일탈이나 비행 행위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인 사회의 반응이라고 본다. 그리고 최근에는 공식적이고 외부적인 낙인에 의한 영향보다 비공식적이고 내부적인 낙인에

의한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좀 더 비중을 두어 타인의 부정적 시선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자아개념에 통합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여러 국내외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피학대경험과 비공식낙인

아동학대의 개념에 관해 신체적 학대만을 주목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광의적 개념으로써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그 외적인 상해에도 주목하고 있다(신승례, 2008). 국내 아동복지법에서도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의적 개념의 아동학대는 크게 신체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행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학대를 청소년이 경험했을 때’ 이를 피학대경험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만약 청소년에게 이러한 피학대경험이 지속된다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비공식낙인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있어 부모-자녀 관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권이중, 김용구, 2006). 청소년기는 아동기까지 지속되어 오던 부모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시기로서 보통 이 시기에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갈등이 잦아지게 된다. 사실 귀가시간이나 옷차림 등의 사소한 문제로부터 비롯되는 부모-

자녀 간의 가벼운 갈등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도움이 된다(한상철, 2004). 그러나 부모-자녀 간 갈등의 정도가 심각하고 그 정도가 계속 유지된다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송설희, 1994). 따라서 부모가 청소년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를 하는 양육태도를 취한다면 올바른 부모-자녀 관계가 이뤄질 수 없고, 청소년이 부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 자신을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비공식낙인을 형성할 가능성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순형과 이영미(1993)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처벌 혹은 통제위주로 양육한 경우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Kinard(1979)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아동은 정서발달에 문제를 보일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학대로 인해 자아개념에 손상을 입은 아동들은 부모가 자신을 경멸하고 싫어한다고 생각하며, 실제로 잘못이 없음에도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오연희, 2012). 그리고 학대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는 아동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게 된다(신승례, 2008; 이만표, 2012; Solomon & Serres, 1999).

학대의 문제점은 위와 같은 악영향이 청소년기를 넘어서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것이다(이혜영, 2015; Auslander, Sterzing, Threlfall, Gerke & Edmond, 2016). 이재연 외(2000)는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면 자아기능 손상 및 전반적인 부적응 문제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초기

에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은 부정적인 자아개념의 형성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이후에 지위비행이나 범죄 등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연구들도 있다(김민강, 2002; 김유정, 1994).

비공식낙인과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학교에서 받은 학습의 결과들을 모두 총칭하는 개념으로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지식, 지적능력, 태도, 가치관 등을 포함한다(양애경, 조호제, 2009). 그러나 보다 일반적으로 학업성취도는 교수-학습 과정에서 학생들이 특정 시기에 성취해야 하는 학습 과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성적을 대표적인 판단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황혜자, 최윤화, 2003; 박병선, 배성우, 2012). 그리고 자가 보고한 학교성적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행된 객관적인 학교성적과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을 갖는다는 선행연구들이 있다(이숙정, 2006; 추상엽, 임성문,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를 자가보고 석차 백분율로 평가하고자 한다.

한편 선행연구를 참고함에 있어, 직접적으로 비공식낙인과 학업성취의 저하를 살펴본 연구(이성식, 2007; Triplett, 1993)는 드물었지만, 학업성취와 자아개념,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을 함께 살펴본 연구들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개념은 “외부 환경의 영향에 따른 주관적인 나와 객관적인 나에 대한 인식”이다(이명숙, 2008).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이후 행동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이명숙, 이규민, 2009). 같

은 맥락으로 비공식낙인은 교사, 부모, 또래와 같은 외부환경에 의해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타인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받는다 인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공식낙인은 부정적 자아개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자기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청소년은 스스로를 존중하기 어렵고 자아존중감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신승례, 2008). 때문에 비공식낙인은 자아존중감과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가늠해볼 수 있다(진혜민 외, 2011).

학업성취와 자아개념의 관계를 살펴본 송인섭(1998, 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개념이 부정적일수록 학업성적이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김선숙과 고미선(2007)은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종단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종단자료를 이용하여 이들의 학업성취 패턴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러한 변화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업성취는 선형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이러한 변화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다(허균, 2014; 오정석, 김성백, 박찬정, 2014; 김영숙, 2002).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을 유추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비공식낙인은 한번 형성되면 그 영향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서미경과 김홍석(2013), 박현수 외(2009)의 연구결과와 청소년의 비공식낙인이 다음 해의 학업성취 저하를 예측한다고 보고한 이성식(2007)의 연구를 고려해보았을 때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이 학업성취도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피학대경험과 학업성취도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학업성취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박영신, 김의철, 2003). 즉,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고 학업적으로 격려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이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은아, 2010; 황혜자, 최윤화, 2003). 반대로, 만약 부모-자녀관계가 부적절한 방향으로 지속된다면 자녀의 학업성취의 저하가 야기될 수 있다(Coohey, Renner, Hua, Zhang & Whitney, 2011).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은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고(이호택, 2012; 배화옥, 2010), 부모가 자녀를 거부하고 적대적으로 대할 때 자녀의 학업성취도가 낮아졌다(박영신, 김의철, 2000)는 선행 연구들이 있다. 또한 정서적 학대와 방임이 학업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Iwaniec, 2006; 서영숙, 2001; 송미령, 2005;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그리고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대의 악영향이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 보았을 때(이혜영, 2015; 이재연 외, 2000)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연구문제

수정된 낙인이론과 많은 경험적 선행연구들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청소년이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낙인찍어 학업성취의 실패를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본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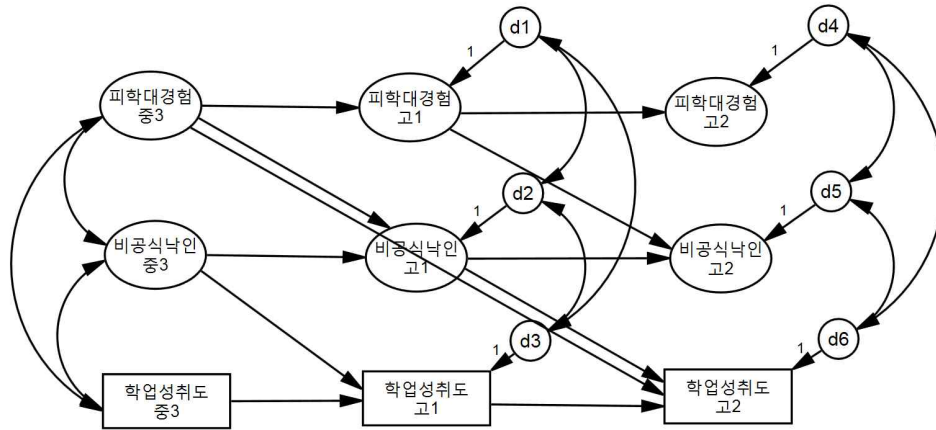


그림 1. 비공식낙인의 종단적 매개효과 연구 모형

주. 동그라미로 나타난 변수는 잠재변수로써 모형의 복잡성을 감안해 각각의 잠재변수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그림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구에서는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에 주는 영향을 비공식낙인이 종단적으로 매개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은 비공식낙인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청소년의 비공식낙인은 학업성취도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은 학업성취도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청소년의 비공식낙인은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적인 매개효과를 갖는가?

위 연구문제에 대한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청소년패널(Korea Youth Panel Survey, KYPS)을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들의 태도나 행위의 변화양상을 인과적으로 파악하고 설명하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과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각각 층화다단계집락표집법을 활용하여 표집하고 추적 조사하여 종단적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는 고등학생에 있어서 좀 더 의미가 있으므로(이은아, 2010) 고등학생을 분석모델에 포함시키기 위해 중학교 2학년 패널을 활용하고자 했으며, 그 중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하는 1차년도(2003년) 데이터는 자료수집방법에 있어서 2~6차년도의 데이터와 차이가 났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1차년도에는 학교방문을 통한 집단면접조사로

자료수집을 진행했지만 그 이후부터는 개인별 추적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조사환경이 다른 경우 비공식낙인과 같은 민감한 사항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외부에 의한 오염변인이 같은 수준으로 통제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003년 이후로 조사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중2 패널 2차년도 데이터(2004년)와 고등학교 1학년인 중2 패널 3차년도 데이터(2005년), 고등학교 2학년인 중2패널 4차년도 데이터(2006년)를 활용하여 중학생 때의 피학대경험 및 비공식낙인의 영향이 고등학교 때의 학업성취로까지 이어지는지 알아보았다. 분석에 활용한 중2 패널 2~4차년도 데이터의 사례 수는 연구모형에 포함되는 각 변수에서 2~4차년도 모두 결측값이 나타나는 사례를 제거한 총 3,168명(남: 1,609명, 여: 1,559명)의 사례를 활용하였다.

측정도구

독립변수 : 피학대경험

피학대경험은 정서학대에 해당하는 언어적 폭력과 신체학대에 해당하는 신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경험으로 구성되며 총 두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한 욕설을 자주 듣는 편이다.’라는 문항이 정서학대 피해경험에 속하고,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심하게 맞은 적이 많이 있다.’라는 문항이 신체학대 피해경험에 속한다.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고 문항점수가 높을수록 피학대경험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2 패

널 2차년도~4차년도 데이터의 피학대경험 Cronbach's α 값은 각각 .83, .79, .84로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나타냈다.

매개변수 : 비공식낙인

비공식낙인은 스스로를 문제아 혹은 비행청소년으로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과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문제아 혹은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하는 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네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나는 나 자신이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와 ‘나는 나 자신이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문항은 스스로를 낙인찍고 있는 정도에 대한 측정 문항이고, ‘주위사람들은 나를 문제아라고 생각한다.’와 ‘주위사람들은 나를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이 두 문항은 주위사람이 자신을 낙인찍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측정문항이다. 비공식낙인을 측정함에 있어 이 총 네 문항을 여러 국내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다(김보영 외, 2015; 장은비 외, 2014; 김소현, 2010; 박현수 외, 2009). 모든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보통이다,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점수가 높을수록 비공식낙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3, 고1, 고2 때 측정된 비공식낙인의 Cronbach's α 값은 모두 .92로 높은 내적일관성을 나타냈다.

종속변수 : 학업성취도

본 연구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학업성취도는 자가 보고된 학교성적을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자가 보고된 전교등수 비율을 사용하고자 한다. 국내 여러 연구에서도 석차 백분율을 학업성취도에 대한 측정도

구로 사용하고 있고(서영근, 2002; 안병철, 2007; 김현주, 이병훈, 2007), 자가 보고된 성적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바 있다(최유선, 손은령, 2015; 곽수란, 2014; 추상엽, 임성문, 2007; 이숙정, 2006).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전교등수비율은 자신의 전교등수를 전교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으로 이 값이 작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자료분석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는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Curve Modeling)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이 많이 활용된다(박현정, 이진실, 2013).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낙인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사용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은 변수 간의 시간적 선행성을 고려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변수 간의 경로 동일성 검증을 통해 각 시점마다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갖는 효과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갖는 효과를

통제할 수 있으므로,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를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윤태희, 조영일, 2014). 다시 말해, 그림 2에서 회귀계수 a , b 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함으로써 간접효과 $a*b$ 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잠재변수에 대한 동일한 측정문항들을 시점별로 제약하는 측정 동일성 검증을 통해 잠재변수의 개념이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지에 대한 통계적 평가가 가능하고(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을 통해 제 3변수의 효과가 시점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각 변수가 갖는 관련성이 우연히 발생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따라서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이 매개효과를 종단적으로 검증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ARCL)은 t 시점의 값이 $t-1$ 시점(이전시점)의 값에 의해서 설명되어지는 자기회귀모형(Autoregressive Model)을 두 변수 간의 상호 영향력을 추정하기 위해 다변량 모형으로 확장한 모형을 말한다(홍세희, 유숙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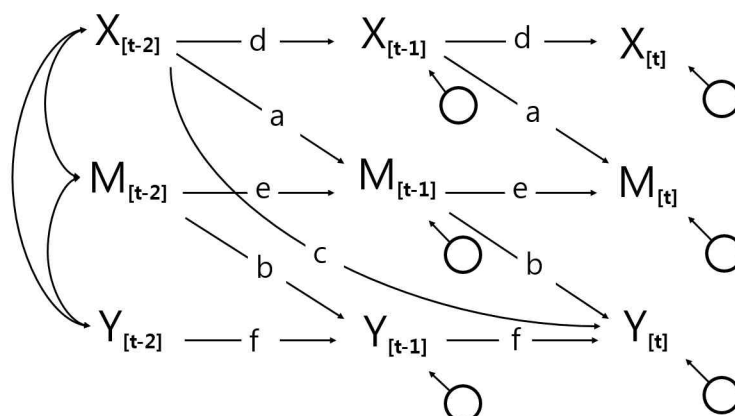


그림 2. 종단적 매개효과 경로 모형

2004). 여기에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그림 2와 같은 모형을 통해 매개변수에 의한 간접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Cole & Maxwell, 2003).

모형의 기본적인 적합도 평가 기준으로는 홍세희(2000)의 제안에 따라 χ^2 검정과 더불어 증분적합지수인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와 절대적합지수인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는 .90 이상일 때 좋은 적합도로, RMSEA는 .08보다 작을 때 양호한 적합도로 해석된다(홍세희, 2000). 또한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검증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χ^2 차이 검증과 더불어 Δ CFI와 Δ RMSEA를 활용하였다. χ^2 는 모델의 복잡성과 표본 크기에 민감하므로 실용적인 다른 적합도 지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최수미, 조영일, 2013; 우종필, 2012; 김주환 외, 2009). CFI의 경우는 값이 .01만큼 줄어 들었을 때 모형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달라졌다고 판단할 수 있고(Cheung & Rensvold, 2002), RMSEA는 .015보다 커졌을 때 모형 적합도가 유의미하게 나빠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Chen, 2007; 윤태희, 조영일, 2014).

모든 분석과정은 SPSS 22.0와 AMOS 22.0으로 진행하였고, 결측치에 대한 처리는 EM알고리즘(expectation-maximization algorithm)을 활용하였다. EM알고리즘방식은 불완전한 자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결측치를 대체하는데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써(배현주, 2004; 강민아, 김경아, 2006; 장은비 외, 2014), 결측치를 처리하기 위한 전통적 방법인 목록별 제거(listwise)와 평균대체법(mean imputation)보다 미지수 추정을 더 정확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우해봉, 윤인진, 2008; 박재현, 강민수, 이진오, 강상조, 2005). 마지막으로 종단적

매개효과(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을 활용하였는데 이 방법은 변수에 대한 모집단의 분포가 정상분포여야 하는 정규성 가정과 상관없이 간접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line,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ootstrapping에 의해 하위표본 추출을 500번 반복하였고, 이를 통해 추정된 경험적 분포에 대한 95% 신뢰구간으로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

피학대경험, 비공식낙인, 학업성취도를 포함하는 종단적 매개효과 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각 변수의 연도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수에 대한 평균, 표준편차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피학대경험의 경우 평균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M=1.76$, $SD=0.92$), 고등학교 2학년($M=1.65$, $SD=0.80$)때와 고등학교 1학년($M=1.59$, $SD=0.74$)때의 피학대경험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균적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한지 살펴보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 ANOVA)을 시행한 결과, 피학대경험이 연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1.89, 5992.84)=55.86$, $p<.001$, Greenhouse-Geiser $\epsilon=.946$). Bonferroni 교정법을 활용한 사후분석에서도 연도별로 모두 평균 차이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피학대경험과는 달리 비공식낙인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평균적으로 그 수준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즉 중학교 3학년 때의 비공식

표 1. 피학대경험, 비공식낙인, 학업성취도의 기술통계치 ($N=3,168$)

변수	2차년도(중3)		3차년도(고1)		4차년도(고2)		F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피학대경험	1.76	0.92	1.59	0.74	1.65	0.80	55.86***
비공식낙인	1.74	0.72	1.77	0.68	1.82	0.74	17.42***
학업성취도	39.80	24.85	37.89	22.29	39.07	21.88	12.83***

* $p < .05$; ** $p < .01$; *** $p < .001$

낙인 수준이 가장 낮았고($M=1.74$, $SD=0.72$),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장 높은 평균을 보였다($M=1.82$, $SD=0.74$).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에서도 연도별로 각각 비공식낙인의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1.95, 6175.73)=17.42$, $p<.001$, Greenhouse-Geiser $\varepsilon=.975$).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의 경우는 점수가 낮을수록 성취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므로 고등학교 1학년($M=37.89$, $SD=22.29$), 고등학교 2학년($M=39.07$, $SD=21.88$), 중학교 3학년($M=39.80$, $SD=24.85$) 순으로 평균적인 학업성취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복측정 분산분석 및 사후분석 결과에서는 중학교 3학년 때 학업성취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제외하고 연도별 학업성취의 평균 차이가 모두 유의하였다($F(1.56, 4928.99)=12.83$, $p<.001$, Greenhouse-Geiser $\varepsilon=.778$).

변수들 간 상관관계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피학대경험과 비공식낙인, 학업성취도를 측정한 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학대경험의 경우 비공식낙인과 가장 큰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같은 연도에 해당하는

두 변수끼리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즉 중학교 3학년 때의 피학대경험은 중학교 3학년 때의 비공식낙인과($r=.30$, $p<.001$), 고등학교 1학년 때 피학대경험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비공식낙인과($r=.30$, $p<.001$), 고등학교 2학년 때 피학대경험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비공식낙인과 가장 큰 상관관계를 보였다($r=.36$, $p<.001$). 그리고 피학대경험은 학업성취도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중학교 3학년($r=.17$, $p<.001$), 고등학교 1학년($r=.14$, $p<.001$), 고등학교 2학년($r=.15$, $p<.001$) 때의 피학대경험 모두 중학교 3학년 때의 학업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비공식낙인과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정적인 관계를 나타내었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r=.24$, $p<.001$), 고등학교 1학년($r=.25$, $p<.001$), 고등학교 2학년($r=.20$, $p<.001$) 때의 비공식낙인 모두 중학교 3학년 때의 학업성취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비공식 낙인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그림 3의 모형을 기반으로 11개의 경쟁모형을 설정하였

표 2. 피학대경험, 비공식낙인,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N=3,168$)

	1	2	3	4	5	6	7	8	9
1	1								
2	.46***	1							
3	.36***	.46***	1						
4	.30***	.20***	.20***	1					
5	.25***	.30***	.25***	.45***	1				
6	.21***	.23***	.36***	.36***	.47***	1			
7	.17***	.14***	.15***	.24***	.25***	.20***	1		
8	.09***	.12***	.07***	.17***	.21***	.17***	.49***	1	
9	.13***	.13***	.11***	.17***	.19***	.18***	.47***	.78***	1

* $p < .05$; ** $p < .01$; *** $p < .001$

주. 1. 피학대경험(중3) 2. 피학대경험(고1) 3. 피학대경험(고2) 4. 비공식낙인(중3) 5. 비공식낙인(고1) 6. 비공식낙인(고2) 7. 학업성취도(중3) 8. 학업성취도(고1) 9. 학업성취도(고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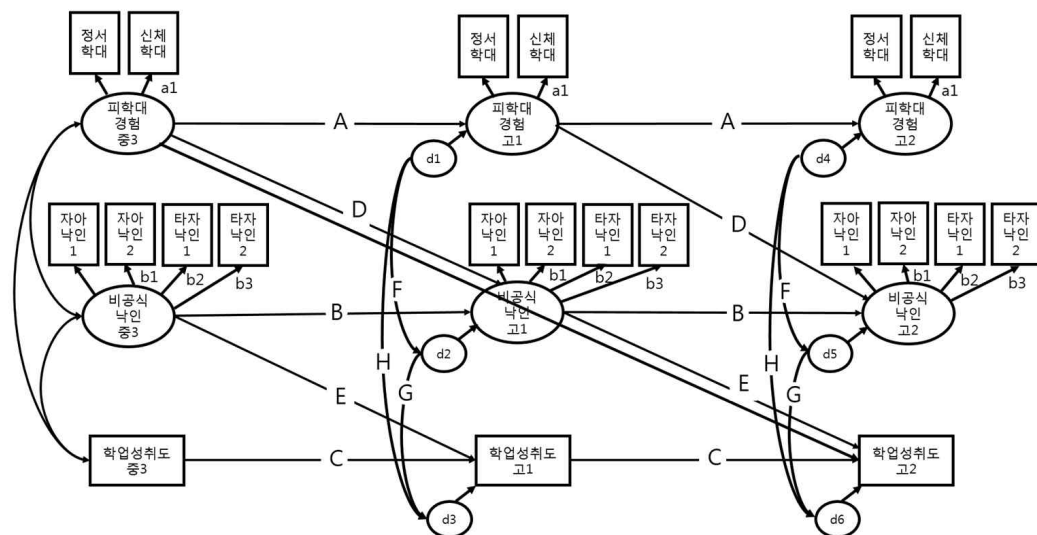


그림 3. 비공식낙인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모형

다. 각각의 모형은 측정 동일성(모형2~모형3), 같다.

경로 동일성(모형4~모형8), 오차 공분산 동일성(모형9~모형11)을 검증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각 모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모형1: 어떠한 제약도 가하지 않은 기저모형이다.

모형2: 기저모형에서 피학대경험 측정변인

에 대한 요인적재치(a1)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모형3: 모형2에서 비공식낙인 측정변인에 대한 요인적재치(b1, b2, b3)를 각 시점별로 동일하게 제약한 모형이다.

모형4: 모형3에서 잠재변인인 피학대경험의 자기회귀계수(A)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이다.

모형5: 모형4에서 잠재변인인 비공식낙인의 자기회귀계수(B)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이다.

모형6: 모형5에서 측정변인인 학업성취도의 자기회귀계수(C)에 대해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이다.

모형7: 모형6에서 잠재변인인 비공식낙인에 대한 피학대경험의 교차회귀계수(D)에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이다.

모형8: 모형7에서 측정변인인 학업성취도에 대한 잠재변인 비공식낙인의 교차회귀계수(E)에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이다.

모형9: 모형8에서 잠재변인인 피학대경험과 비공식낙인 간의 오차 공분산(F) 사이에 대하여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이다.

모형10: 모형9에서 잠재변인인 비공식낙인과 측정변인인 학업성취도 간의 오차 공분산(G) 사이에 대하여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이다.

모형11: 모형10에서 잠재변인인 피학대경험과 측정변인인 학업성취도 간의 오차 공분산(H) 사이에 대하여 동일성 제약을 한 모형이다.

각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와 모형 간의 χ^2 및 df 의 차이는 표 3에 보고하였다. 기저모형이 되는 모형1이 적합하다고 판단됨에 따라($\chi^2(172)=3211.36$, $p<.001$, CFI=.937, TLI=

.923, RMSEA=.075, 90%신뢰구간=[.072 .077]) 측정 동일성, 경로 동일성, 오차 공분산 동일성을 순차적으로 검증하였고, 각각의 동일성 검증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모형 간의 $\Delta\chi^2$ 검정과 더불어 ΔCFI 와 $\Delta RMSEA$ 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

측정동일성 검증의 경우 모형1~모형3을 통해 이루어졌다. 먼저 모형1과 모형2 간의 $\Delta\chi^2$ 검정에서 두 모형 간의 차이($\Delta\chi^2=3.04$, $\Delta df=2$, $p>.05$)가 유의하지 않았고, CFI는 두 모형 간에 동일했으며 $\Delta RMSEA$ 도 .015보다 작게 나타남에 따라 모형1과 2를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중 자유도가 더 높은 모형2를 채택하였다. 모형2와 모형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Delta\chi^2$ 검정에서 두 모형 간의 차이($\Delta\chi^2=4.50$, $\Delta df=6$, $p>.05$)가 유의하지 않았고, ΔCFI 와 $\Delta RMSEA$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Delta CFI<.01$, $\Delta RMSEA<.015$) 모형2와 모형3을 동일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더 간명한 모형인 모형3을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에 따른 측정동일성이 성립되었고, 이는 각 시점별로 측정변수 내용에 대한 응답이 동일하게 이루어져 잠재변수의 개념이 변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경로 동일성 검증도 측정 동일성 검증과 마찬가지로 모형4~모형8로 두 모형간의 차이검증을 통해 이루어졌다. 모형3과 모형4, 모형4와 모형5, 모형5와 모형6은 χ^2 값이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지만 ΔCFI 와 $\Delta RMSEA$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모형6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모형6과 모형7($\Delta\chi^2=0.25$, $\Delta df=1$, $p>.05$, $\Delta CFI<.01$, $\Delta RMSEA<.015$), 모형7과 모형8($\Delta\chi^2=2.81$, $\Delta df=1$, $p>.05$, $\Delta CFI<.01$, $\Delta RMSEA<.015$) 간의 차이 검증에서는 $\Delta\chi^2$ 검정과 더불어 ΔCFI 와

표 3. 피학대경험, 비공식낙인, 학업성취도 간의 ARCL 적합도

모형	χ^2	df	CFI	TLI	RMSEA (90% CI)	$\Delta\chi^2$	Δdf
모형1	3211.36	172	.937	.923	.075(.072 .077)	-	-
모형2	3214.40	174	.937	.923	.074(.072 .077)	3.04	2
모형3	3218.90	180	.937	.926	.073(.071 .075)	4.50	6
모형4	3270.09	181	.936	.925	.073(.071 .076)	51.19	1
모형5	3279.30	182	.935	.925	.073(.071 .076)	9.21	1
모형6	3617.38	183	.928	.918	.077(.075 .079)	338.08	1
모형7	3617.63	184	.928	.918	.077(.075 .079)	0.25	1
모형8	3620.44	185	.928	.919	.077(.074 .079)	2.81	1
모형9	3629.66	186	.928	.919	.076(.074 .079)	9.22	1
모형10	3629.97	187	.928	.919	.076(.074 .078)	0.31	1
모형11	3630.00	188	.928	.920	.076(.074 .078)	0.03	1

Δ RMSEA에서 모두 동일성이 검증됨에 따라 모형8을 채택하였고 따라서 시간에 따른 자기회귀계수와 교차회귀계수에 대한 경로동일성 가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즉, 이전시점의 변수가 현시점의 변수에 주는 효과가 각 시점별로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오차 공분산 동일성 검증은 모형9~모형11을 통해 진행되었다. 모형8과 모형9 사이의 $\Delta\chi^2$ 값은 유의수준 .05에서 유의하였지만 Δ CFI와 Δ RMSEA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고, 모형9와 모형10($\Delta\chi^2=0.31$, $\Delta df=1$, $p>.05$, Δ CFI<.01, Δ RMSEA<.015), 모형10과 모형11($\Delta\chi^2=0.03$, $\Delta df=1$, $p>.05$, Δ CFI<.01, Δ RMSEA<.015) 간의 $\Delta\chi^2$ 검정, Δ CFI, Δ RMSEA에서 모두 두 모형이 동일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모형11을 최종모형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에 따른 오차 공분산 동일성이 성립되었고, 이는 제 3변수의 효과가 시점별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최종모형으로 선정된 모형11은 좋은 적합도를 보였고($\chi^2(188)=3630.00$, $p<.001$, CFI=.928, TLI=.920, RMSEA=.076, 90%신뢰구간=[.074 .078]), 표 4와 그림 4에 최종모형에 대한 경로계수를 보고하였다.

먼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학대경험, 비공식낙인, 학업성취도 각각이 갖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모든 변수가 안정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중학교 3학년 때의 피학대경험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높은 피학대경험 수준을 나타내었고($\beta=.632$, $p<.001$), 이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피학대경험이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2학년 때 높은 피학대경험이 나타났다($\beta=.523$, $p<.001$). 비공식낙인과 학업성취도도 마찬가지로 학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학년의 정적인 영향력이 유지되었다.

표 4. 최종모형(모형11)의 표준화된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 경로계수
피학대경험 중3	→ 피학대경험 고1	.632***
비공식낙인 중3	→ 비공식낙인 고1	.445***
학업성취도 중3	→ 학업성취도 고1	.615***
피학대경험 중3	→ 비공식낙인 고1	.146***
비공식낙인 중3	→ 학업성취도 고1	.023**
피학대경험 고1	→ 피학대경험 고2	.523***
비공식낙인 고1	→ 비공식낙인 고2	.426***
학업성취도 고1	→ 학업성취도 고2	.749***
피학대경험 고1	→ 비공식낙인 고2	.119***
비공식낙인 고1	→ 학업성취도 고2	.027**
피학대경험 중3	→ 학업성취도 고2	.069**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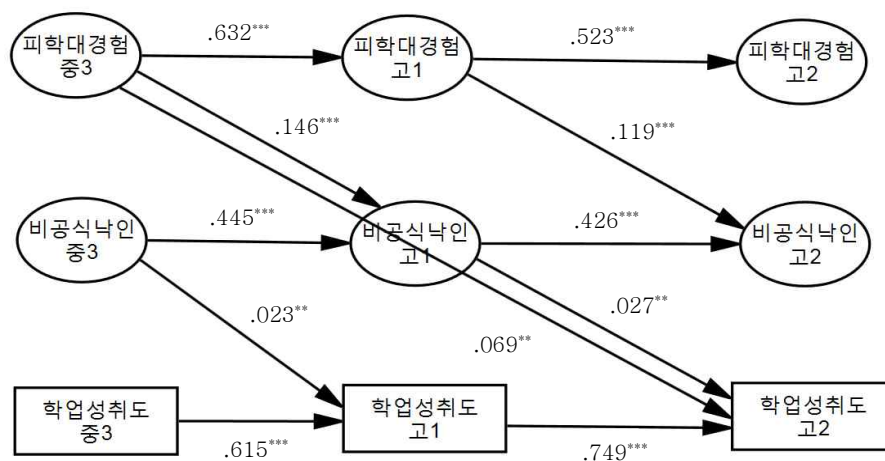


그림 4. 비공식낙인의 종단적 매개효과 최종모형(모형11)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주. 표시된 경로계수는 표준화된 경로계수이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의 피학대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높은 비공식낙인 수준이 예측되었고($\beta=.146$, $p<.001$),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피학대경험 수준이 높을

수록 고등학교 2학년 때의 높은 비공식낙인 수준이 예측되었다($\beta=.119$, $p<.001$). 또한 중학교 3학년 때의 비공식낙인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1학년 때 낮은 학업성취를 보였고(β

$=.023, p<.01$), 고등학교 1학년 때의 비공식낙인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학교 2학년 때 낮은 학업성취를 보였다($\beta=.027, p<.01$).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때의 피학대경험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효과는 유의하였고($\beta=.069, p<.01$), 2차년도와 3차년도의 학대경험이 3차년도의 비공식낙인을 거쳐 4차년도의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간접 효과($\beta=.004, p<.01$)는 bootstrapping 결과 유의하게 나타났다(500번 반복추출, 95%신뢰구간에서 [.001, .009]).

논 의

본 연구는 최근까지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더불어(보건복지부, 2015) 학업적 스트레스 문제가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국내적 상황을 반영하여(이택호, 이석영, 한윤선, 2015), 여러 선행연구들과 낙인이론을 통해 비공식낙인의 종단적 매개모형을 구성하고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즉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비공식낙인이 매개하는지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ARCL)을 활용하여 KYPs 중2 패널 2차년도~4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은 자녀의 비공식낙인에 종단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수정된 낙인이론에서는 청소년이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스스로 해석하여 자아개념에 통합하는 과정을 특히 강조하였는데(김소현, 2010), 본 연구의 결과 또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부정적인 자아개

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정된 낙인이론의 관점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피학대경험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자아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욕설 및 폭력 등의 부정적인 양육 하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그 경험으로 인해 스스로 자신을 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부모님께 학대를 받는 이유는 자신이 나쁘기 때문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장화정, 2004). Lopez와 Heffer(1998)의 연구에서도 아동기의 신체적 학대 경험이 이후 청소년기 자아 개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Arslan(2016)의 연구 또한 신체적 학대를 받은 14-19세 청소년들이 자아 존중감의 저하와 여러 정서문제를 경험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반대로 긍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비공식낙인을 줄여주는 영향력을 갖는다(김효수 외, 2010). 문영숙과 한진숙(2003)의 연구에서도 자녀가 지각한 부모-자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준다는 여러 선행연구들(김마리아, 2013; 김예수, 조봉환, 2009; 정미라, 원유미, 2001; 홍세희 외, 2006)이 있다. 따라서 부모로부터의 피학대경험이 부모-자녀관계라는 큰 틀에 포함된다고 보았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자아형성에 있어서 부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추가적인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비공식낙인은 학업성취에 종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비공식낙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비공식낙인의 결과로써 비행을 중점적으로 보았으나(Bartusch & Matsueda, 1996; 최수형, 2008;

김민정, 김순석, 2014; 곽상은, 김춘경, 2013), 본 연구에서는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을 학업성취까지 확장하였고, 그 결과 비공식낙인은 이후의 학업성취를 저하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비공식낙인이 학업성취를 저하시키는 이유에 대해서는 Identity-based motivation(IBM) 모델을 적용하여 살펴볼 수 있다. IBM모델에서는 사람들이 특정 활동과 상황, 그에 따른 어려움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현재 자신의 정체성에 그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여부라고 본다. 즉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맞는 상황과 활동을 선호하게 되는데, 만약 자신이 느끼기에 특정 활동이 자신의 정체성에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활동으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은 의미 있고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같은 활동이라도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활동이라 여긴다면 그에 따른 어려움은 가치가 없고 나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이다(Oyserman & Destin, 2010).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을 문제아 혹은 비행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면 학교 안에서의 교사관계, 수업 참여와 같은 활동들을 자신이 기꺼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기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을 위한 노력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비추어 봤을 때 가치가 없고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라고 여기게 되어 결과적으로 학업성취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무단결석과 같은 지위비행에 비공식낙인이 영향을 주므로(김민정, 김순석, 2014) 이 또한 학업성취의 저하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종단적으로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고, 이 경로를 비공식낙인이 부분 매개하였다. 피학대경험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그 영향력이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욕설 및 폭력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에 대한 지속적인 악영향을 보고하고 있는데, Silverman, Reinherz와 Giaconia(1996)에 따르면 15세의 청소년들을 21세까지 추적 조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피학대경험 유무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청소년기에 피학대경험을 한 집단에서 이후에 우울, 불안 및 여러 정서행동문제, 자살생각 및 자살시도 등이 더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는 이후 성인기에 저지르는 범죄나 자신이 부모가 됐을 때 자녀에게 학대를 가하는 세대전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한지숙, 2005). 또한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여성은 이후 초기 성인기에 대인 관계에서 문제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박은미, 1999).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피학대경험이 청소년에게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도 학업영역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과 비공식낙인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을 동시에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학업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의 경우 피학대경험의 유무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이태준과 권정혜(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피학대경험을 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학교생활적응에서 더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이태준, 권정혜, 2007). 김자영(2014)의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정서적 학대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종단적인 관계에서 피학대경험이 비공식낙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 것은 현 시점의 피학대경험, 비공식낙

인, 학업성취가 이전 시점의 영향력을 안정적으로 계속 받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피학대경험의 경우 부모에 의한 학대 자체가 자녀의 특성과 가족의 특성에 따라 재발 및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배화옥, 2004) 가족 구성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나 청소년의 특성과 같은 개인적 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학대가 재발될 수 있다. 따라서 정서적 혹은 신체적 폭력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 또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을 종단적으로 살펴본 박현선, 박지명과 김정은(2014)의 연구에서도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부모의 자녀학대가 지속적으로 정적인 영향력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김민주(2016)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자녀학대가 학년의 증가에 따라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었다. 피학대경험과 마찬가지로 비공식낙인도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는 부정적인 관계가 개선되지 않은 이상 혹은 주변의 또래나 교사에 의한 지지가 보호요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유지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성취도의 경우 본 연구의 연구대상인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청소년들에게 특히 민감한 부분인 만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도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업성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혹은 개인적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학업성취도는 그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게 될 것이다. 청소년의 학업성취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국내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학년의 증가에 따라 학업성취도의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현정, 정혜원, 2015; 이경은, 이주리, 2008; 신이나, 손원숙, 2015). 따라서 본 연

구의 결과도 이들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갖는 경험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경험이 비공식낙인을 거쳐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와 비공식낙인 예방을 위한 개입방향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피학대경험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기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방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자녀 스스로 가능해지도록 한다면 실제로 학대를 받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이유를 자신의 잘못으로 돌려 학대 자체가 은폐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통해 피학대경험으로 인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외부에서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해 학대에 대한 개입을 조기에 하지 못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학업(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에 영향을 주는 비공식낙인 또한 예방 및 교육의 주제로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앞서 언급한 IBM모델에 근거한다면 긍정적인 정체감은 긍정적 동기와 긍정적 변화의 핵심이므로 타인에 의한 낙인이나 자기에 의한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교적응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비공식낙인은 청소년 주변의 중요한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가족이나 학교로부터 예방 및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미 비공식낙인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를 극복하게끔 도와주기 위한 대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했을 때에는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바꿔

주는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자신을 문제아나 비행청소년이 아닌 학생으로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면 다시 말해, 학교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학생이라는 정체감이 형성된다면 긍정적인 교우 및 교사 관계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수업참여활동도 기꺼이 할 수 있는 노력이라 여길 것이므로 전반적인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낼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비공식낙인과 피학대경험을 평균적으로 적게 경험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학업성취에 대한 비공식낙인의 부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는 경로계수가 작았던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비공식낙인의 효과크기가 작게 나타났기 때문에 추후연구에 이를 반영하여 제 3의 다른 변인과 함께 연구모델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학대가 영향을 주는 여러 영역들 중에 우울,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황은수, 성영혜, 2006)를 매개변수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델에서 비공식낙인의 영향력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 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측정문항에 관련하여서는 2차 자료를 활용하는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독립변수에 해당하는 피학대경험이 두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기 때문에 학대의 종류, 강도 혹은 지속여부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측정을 통해 도출된 피학대경험 변수를 사용하여 추후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본 연구에서는 피학대경험을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에 국한시켜서 보았는데 그 외에 방임과 성적학대 더 나아가 괴상간섭도 비공식낙인에 어떠한 영향을 갖는

지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해당하는 학업성취도의 경우 자가 보고된 측정변수를 활용하였으므로 객관적인 학업성취와 비공식낙인 그리고 피학대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또한 매개변수인 비공식낙인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스스로를 낙인찍고 있는 정도에 대한 문항과 주위사람이 자신을 낙인찍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을 함께 묶어서 변수로 활용하였다. 그런데 주위에서 자신을 문제아 혹은 비행청소년으로 낙인찍고 있다 해도 스스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위의 비공식 낙인을 자신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로 구분지어서 비교해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청소년기는 특히 또래영향을 많이 받는 시기로서 위계적인 성격이 짙은 성인과의 관계와는 달리 평등한 상호작용이 두드러지는 또래와의 관계가 주는 영향력도 생각해볼 수 있다(김학령, 김정화, 정익중, 2011). 따라서 부모관계 뿐 아니라 또래관계가 비공식낙인에 미치는 영향도 추후 연구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대의 이유가 저조한 학교성적 때문일 수도 있으므로(한경혜, 김영희, 1999) 학업성취가 피학대경험에 주는 영향력을 고려한 모델 구축도 추후 연구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비록 위와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본 연구는 비공식낙인 관련 국내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공식낙인에 영향을 주는 변수와 비공식낙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변수 간의 종단적인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낙인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 적용된 ARCL도 종단적 매개효과를 살펴보기에 적합한 방법론으로써 이를 통해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

식낙인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참고문헌

강민아, 김경아 (2006). 행정학 및 정책학 조사 연구에서 결측치 발생과 처리 방법에 대한 고찰. *한국행정학보*, 40(2), 31-52.

곽상은, 김춘경 (2013). 애착, 비공식낙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10(1), 77-95.

곽수란 (2014). 아동·청소년기 사회적 관계가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24(2), 1-24.

권이중, 김용구 (2006). 청소년이해론. 서울: 교육과학사.

권지은, 이은정, 노충래 (2013). 청소년이 지각한 방임과 학대가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교사관계 및 교우관계 매개효과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2, 29-54.

김마리아 (2013). 부모의 교육적 기대수준이 자녀의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2), 117-139.

김민강 (2002).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민정, 김순석 (2014). 비공식낙인이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9(3), 127-147.

김민주 (2016). 부모의 학대 및 방임과 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의 안정성 및 상호적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보영, 이지혜, 이수정, 김혜자, 이상민 (2015).

청소년의 비공식낙인과 공격성의 종단적 관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1(1), 277-295.

김선숙, 고미선 (2007).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5-29.

김소현 (2010). 다층성장모형(HLM)을 통한 청소년의 비공식적 낙인 변화 추정.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7(-), 7-31.

김영숙 (2002). 청소년의 애착유형,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예수, 조봉환 (2009). 초등학교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개념 및 진로희망성숙도의 관계. *상담평가연구*, 2(1), 87-103.

김유정 (1994).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 방법: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자영 (2014).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보건사회연구*, 34(3), 286-316.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학령, 김정화, 정익중 (2011). 청소년의 친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집단의 영향력 검증 - 또래영향모델과 개인특성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6, 261-288.

김현주, 이병훈 (200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가족배경, 사회자본 및 문화자본의 영향. *한국인구학*, 30(1), 125-148.

김효수, 김성천, 유서구 (2010). 비공식낙인과 부모애착이 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인과모형 - 매개효과의 검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2(4), 185-206.

- 문영숙, 한진숙 (2003). 지각된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부모자녀건강학회지, 6(2), 93-102.
- 박병선, 배성우 (2012). 대인관계와 학교성적이 학교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학교급별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14(3), 215-238.
- 박영신, 김의철 (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초·중·고·대 학생의 성취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영신, 김의철 (2003). 연구논문: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10(1), 139-165.
- 박은미 (1999). 아동기 학대 및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인기 대인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박재현, 강민수, 이진오, 강상조 (2005). 결측치 처리: 어떤 방법이 최선인가?. 한국체육학회지, 44(1), 385-398.
- 박현선, 박지명, 김정은 (2014). 부모의 학대와 자녀의 공격성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9, 1-24.
- 박현수, 박성훈, 정혜원 (2009). 청소년비행에 있어 낙인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227-251.
- 박현정, 이진실 (2013). 잠재성장모형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부모자녀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26(1), 83-106.
- 배현주 (2004). 결측값 대체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화옥 (2004). 아동학대 재발생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아동과 권리, 8(4), 611-628.
- 배화옥 (2010).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 아동과 권리, 14(2), 193-217.
- 보건복지부 (2014). 2013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 보건복지부 (2015). 2014년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
- 서미경, 김홍석 (2013). 초기 청소년의 외현적 공격성과 일탈적 자아낙인의 관계-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적용한 성별 다집단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41, 161- 183.
- 서영근 (2002). 학습성격유형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습전략을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영숙 (2001).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이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미령 (2005). 부모의 정서적 방임과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송설희 (1994). 가족유형과 지각된 부모의 수용-거부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송인섭 (1998). 인간의 자아개념 탐구. 서울: 학지사.
- 송인섭 (2001). 자아개념의多元성과 학업성취간 관계. 사회교육과학연구, 5(1), 3-17.
- 신승례 (2008). 피학대경험이 청소년의 자아존중

- 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이나, 손원숙 (2015). 자기결정성 동기와 학업성취도의 종단적 상호효과. 교육심리연구, 29(3), 591-610.
- 안병철 (2007).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 불균등도 평가. 경제연구, 25(2), 21-38.
- 안형숙 (2014).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185-203.
- 양애경, 조호제 (2009). 자기주도적 학습과 학업성취도간의 관계. 한국교육논단, 8(3), 61-82.
- 오연희 (2012). 피학대경험이 아동의 비행과 또래관계 소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사회복지실천, 11, 95-117.
- 오정석, 김성백, 박찬정 (2014).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계획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과학연구, 16(2), 119-131.
- 우종필 (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서울: 한나래출판사.
- 우해봉, 윤인진 (2008). 불완전한 반복측정 자료의 보정방법. 조사연구, 9(2), 1-27.
- 윤탤희, 조영일 (2014). 부모-자녀 애착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종단적 매개효과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7(3), 61-90.
- 이경은, 이주리 (2008). Cross-lagged Autoregressive Model을 적용한 청소년의 학업성취와 자아존중감 간 종단관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135-141.
- 이만표 (2012). 중·고등학생의 성장과정 상처와 열등감, 성격장애,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8(4), 505-532.
- 이명숙 (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행동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명숙, 이규민 (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자아개념, 학교적응 및 학교부적응행동 간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0(1), 167-193.
- 이성식 (2007). 청소년비행과 비공식낙인의 영향: 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형사정책연구, 71, 1105-1127.
- 이숙정 (2006). 중, 고생의 교사신뢰와 자아존중감, 학습동기, 학업성취 및 학습풍토간의 관계모형 검증. 교육심리연구, 20(1), 197-218.
- 이순형, 이영미 (1993).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불일치. 청소년학연구, 1(1), 59-75.
- 이은아 (2010). 고등학생에 대한 학업성취도의 의미.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10(12), 917-930.
- 이재연, 홍강의, 조홍식, 이양희, 안동현, 광영숙, 한지숙 (2000). 한국의 아동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I. 아동과권리, 4(2), 97-112.
- 이정미, 양명숙 (2006). 청소년 전환기 문제행동: 가정 및 학교환경을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7(3), 865-883.
- 이종미 (2006). 치료적 음악활동이 피학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정서변화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태준, 권정혜 (2007). 피학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6(2), 377-389.
- 이택호, 이석영, 한윤선 (2015). 체육시간과 청소년의 외현화·내재화 문제와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2), 131-158.
- 이혜영 (2015).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교정복지연구, 37, 89-119.
- 이호택 (2012). 가정폭력 노출 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부모애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논단, 11(1), 25-52.
- 장은비, 최현주, 하규영, 박은혜, 이상민 (2014). 성별에 따른 부모-자녀 관계, 비공식 낙인, 비행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1(1), 185-205.
- 장화정 (2004). 아동학대와 피해아동의 특성. 아동권리연구, 8(4), 777-792.
- 전현정, 정혜원 (2015). 중학생의 시험불안, 학업적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의 관계-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7), 247-274.
- 정미라, 원유미 (2001).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결정유형이 초등학교 자녀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4(2), 65-85.
- 진혜민, 박병선, 배성우 (2011). 비공식낙인, 자아존중감, 우울, 공격성이 청소년비행에 미치는 영향-경로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21-148.
- 최경숙 (2006). 아동발달심리학. 서울: 교문사.
- 최수미, 조영일 (2013). 부정문항이 포함된 척도의 요인구조 및 방법효과 검증과 남녀간의 차이 비교: Rosenberg 자기존중감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2(3), 571-589.
- 최수형 (2008). 청소년의 반복적 비행과정에서 나타난 비공식낙인의 효과. 한국청소년연구, 19(3), 33-55.
- 최유선, 손은령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추상엽, 임성문 (2007). 연구논문: 가족구조와 고등학생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 부모소득, 학업지원행동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4(3), 135-157.
- 한경혜, 김영희 (1999).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실태와 관련요인: 개인과 가족관련 특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27-3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II: 총괄보고서.
- 한상철 (2004). 청소년학: 청소년 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한지숙 (2005). 학대 및 격리보호가 아동의 심리행동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권리, 9(4), 765-787.
- 허균 (2014). 중학생의 성취가치와 학업성취관계에서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 효과분석. 사고개발, 10(2), 113-126.
- 홍세희 (2000). 특별기고: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 박민선, 김원정 (2007). 인터넷 중독과 부모와의 의사소통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간 다집단 분석. 교

- 육심리연구, 21(1), 129-143.
- 홍세희, 박언하, 홍혜영 (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 추정. *한국 청소년연구*, 17(2), 241-263.
- 홍세희, 유숙경 (2004).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을 적용한 내외통제성과 학업성취의 종단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8(1), 381-392.
- 황은수, 성영혜 (2006). 아동의 학대경험이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인식정서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 연구)*, 9(2), 73-89.
- 황혜자, 최윤희 (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술저널*, 22(1), 285-304.
- Adams, M. S., Robertson, C. T., Gray-Ray, P., & Ray, M. C. (2003). Labeling and delinquency. *Adolescence*, 38(149), 171-186.
- Agnew, R., & Brezina, T. (2012). *Juvenile delinquency: Causes and contro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Akers, R. L., & Sellers, C. S. (2011). 범죄학 이론. (민수홍 외 역). 파주: 나남.
- Arslan, G. (2016). Psychological maltreatment,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role of resilience and self-esteem. *Child Abuse & Neglect*, 52(-), 200-209.
- Auslander, W., Sterzing, P., Threlfall, J., Gerke, D., & Edmond, T. (2016). Childhood abuse and aggression in adolescent girls involved in child welfare: the role of depression and posttraumatic stres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Published online before print, 1-10.
- Bartusch, D. J., & Matsueda, R. L. (1996). Gender, reflected appraisals, and labeling: A cross-group test of an interactionist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75(1), 145-176.
- Chen, F. F. (2007). Sensitivity of goodness of fit indexes to lack of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3), 464-504.
- Cheung, G. W., & Rensvold, R. B. (2002). Evaluating goodness-of-fit indexes for testing measurement invarianc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233-255.
- Cole, D. A., & Maxwell, S. E. (2003). Testing mediational models with longitudinal data: questions and tips in the us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2(4), 558-577.
- Coohey, C., Renner, L. M., Hua, L., Zhang, Y. J., & Whitney, S. D. (2011). Academic achievement despite child maltreatment: A longitudinal study. *Child Abuse & Neglect*, 35(9), 688-699.
- Deković, M., & Meeus, W. (1997). Peer relations in adolescence: Effects of parenting and adolescents' self-concept. *Journal of Adolescence*, 20(2), 163-176.
- Iwaniec, D. (2006). *The emotionally abused and neglected child: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Chichester: Wiley-Blackwell.
- Kinard, E. (1979).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abuse for the child. *Journal of Social Issues*, 35(2), 82-100.
- Kline, R. B. (2010). 구조방정식모형: 원리와 적용. (이현숙 외 역). 서울: 학지사.
- Lopez, M. A., & Heffer, R. W. (1998).

- Self-concept and social competence of university student victim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Child Abuse & Neglect*, 22(3), 183-195.
- Matsueda, R. L. (1992). Reflected appraisals, parental labeling, and delinquency: Specifying a symbolic interactionist theor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7(6), 1577-1611.
- Matsueda, R. L. (2012). The natural history of labeling theory. *Labeling Theory: Empirical Tests*, 18, 13-41.
- Oyserman, D., & Destin, M. (2010). Identity-based motivation: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8(7), 1001-1043.
- Rice, F. P., & Dolgin, K. G. (2009). 청소년심리학. (정영숙 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andstrom, K. L., Martin, D. D., & Fine, G. A. (2010). *Symbols, selves, and social reality: A symbolic interactionist approach to sociology and social psychology*. Los Angeles: Roxbury.
- Siegel, L. (2008). 범죄학: 이론과 유형. (이민식 외 역). 서울: 센케이저러닝코리아.
- Silverman, A. B., Reinherz, H. Z., & Giaconia, R. M. (1996). The long-term sequelae of child and adolescent abuse: A longitudinal community study. *Child Abuse & Neglect*, 20(8), 709-723.
- Solomon, C. R., & Serres, F. (1999). Effects of parental verbal aggression on children's self-esteem and school marks. *Child Abuse & Neglect*, 23(4), 339-351.
- Triplett, R. (1993). The conflict perspective, symbolic interactionism, and the status characteristics hypothesis. *Justice Quarterly*, 10(4), 541-558.

논문 투고일 : 2016. 07. 06
1 차 심사일 : 2016. 07. 08
게재 확정일 : 2016. 11. 08

Longitudinal Mediated Effects of Informal Label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buse and Academic Achievement: Application of Labeling Theory with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Taekho Lee

Yoonsun Han

Departmen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longitudinal mediated effects of informal label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buse and academic achievement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Data were obtained from the second, third, and fourth wave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 cohort ($N=3,168$) of the Korean Youth Panel Survey. The major longitudinal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dolescent abuse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association with future informal labeling. Second, informal labeling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association with future academic achievement. Finally,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abuse and academic achievement was partially mediated by informal labeling.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directions for adolescent abuse prevention. The need for education and prevention of informal labeling was discussed, as well as the direction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with experience of informal labeling. Furthermore, this study may provide empirical evidence for labeling theory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awareness on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adolescent abuse and informal labeling.

Key words : Adolescent Abuse, Informal Labeling, Academic Achievement, Labeling Theory,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